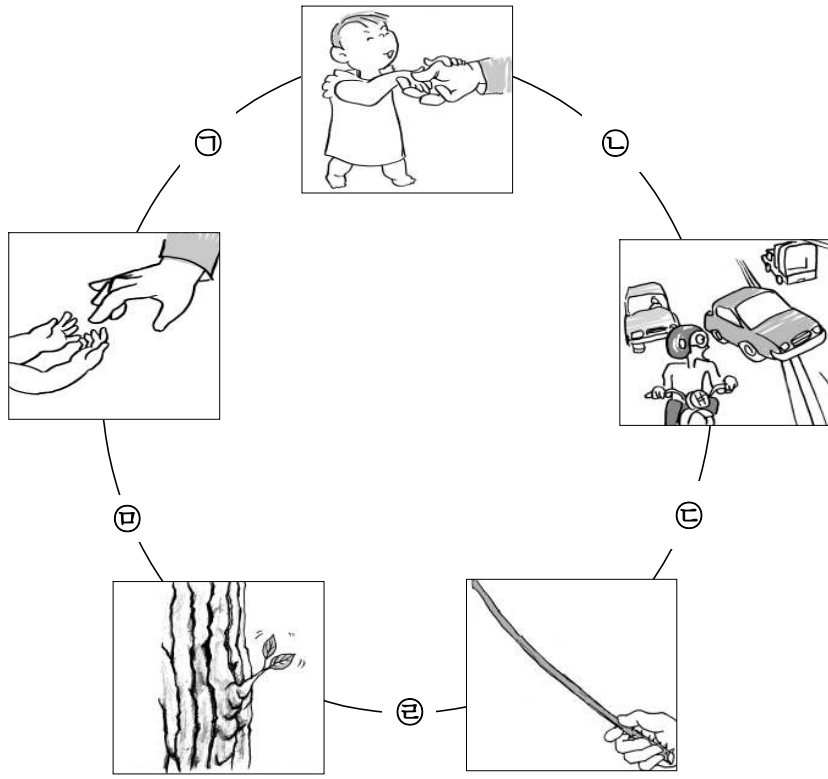


7. 그림을 두 개씩 관련지어 ‘삶의 태도’에 대한 글쓰기 계획을 세워 보았다.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상]	[표현]
①	㉠ 믿음과 출발	새로운 만남은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했을 때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한다.
②	㉡ 성장과 책임	바른 성장을 위해 타인의 그릇된 행동까지 책임지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
③	㉢ 일탈과 인도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④	㉣ 시련과 극복	적박한 현실에서 타인의 질책이 자아성숙을 위한 자양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⑤	㉤ 전수와 계승	앞선 세대의 업적을 계승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가려는 태도가 자기 발전을 가져온다.

8. ‘원자력 발전소 설립 문제’에 관한 개요를 작성한 후 새로운 글감을 접하였다. 글감의 활용 및 개요의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주제문: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I. 서론: 세계 에너지 정책 현황

II. 본론

- 원자력 발전소 설립의 필요성
 - 가. 고유가의 장기화 나. 에너지 수요의 급증
- 원자력 에너지의 긍정적 측면
 - 가. 친환경 에너지 나. 대체 에너지 개발
- 원자력 에너지의 부정적 측면
 - 가. 핵 확산 가능성 나. 막대한 건설 비용
 - 다.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
- 원자력 발전에 대한 보완 과제
 - 가. 핵물질을 관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한 강화
 - 나. 안정성이 확보된 신기술 개발

III. 결론: 요약 및 제언

<p><자료 1></p> <p>화석 연료의 고갈과 고유가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구 선진국이 원자력 발전소의 수를 늘린다면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따라가기 마련이다.</p> <p>현재 아시아의 원자력 발전소 개발 열기는 이미 뜨거울 대로 뜨거워 중국과 인도가 경쟁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다.</p> <p>- 2005. 5. 4 ○○ 일보 -</p>	<p><자료 2></p> <p>UPI 통신은 최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금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p> <p>- 2005. 7. 22 △△ 일보 -</p>												
<p><자료 3> 발전단가 비교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전원별</th> <th>원자력</th> <th>석탄</th> <th>석유</th> </tr> </thead> <tbody> <tr> <td>거래단가(원)</td> <td>40.05</td> <td>42.31</td> <td>75.61</td> </tr> <tr> <td>전력 생산량(%)</td> <td>40.2</td> <td>37.3</td> <td>8.2</td> </tr> </tbody> </table>		전원별	원자력	석탄	석유	거래단가(원)	40.05	42.31	75.61	전력 생산량(%)	40.2	37.3	8.2
전원별	원자력	석탄	석유										
거래단가(원)	40.05	42.31	75.61										
전력 생산량(%)	40.2	37.3	8.2										

- ‘서론’에서는 <자료 1>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임을 소개한다.
- ‘본론-1’에서는 <자료 1>을 활용하여 ‘화석연료 고갈 대비’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 ‘본론-2-나’는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므로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로 교체하고 <자료 3>을 근거로 삼는다.
- ‘본론-3-다’에서는 <자료 2>를 활용하여 원전 기술의 발전으로 사고 위험성은 크게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 ‘본론-4-나’에서는 <자료 2>를 활용하여 ‘원전 핵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9. ‘e-스포츠 육성 방안’을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논지 전개 과정으로 보아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논지 전개 과정	주요 내용
e-스포츠 소개	◦ 전자게임대회 또는 게임리그를 뜻하며 프로게이머 □ 미디어 □ 기업 □ 정부 등 관련이 있는 주체들의 문화적 □ 산업적 활동까지도 포함한다.
육성의 필요성 강조	◦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 ◦ 산업적 효용성과 부가가치 창출 ◦ 간접적인 국가 홍보 효과
문제점 파악	◦ 관계 법령 정비 지연 ◦ 정보 시스템 구축 미흡 ◦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해결 방안 제시	[A]

-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동호회를 조직하고 회원 수를 늘려 나간다.
- 국산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
- 국제 대회에 입상하기 위하여 게이머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버의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한다.
- 일부 청소년만의 전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한다.

10.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표현은? [1점]

<보 기>

[제시문]
 (가) 문화는 절대적 가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야만, 미개, 문명 등의 단계로 평가된다. 여기서 미개는 야만보다, 문명은 미개보다 우월한 문화라는 의미이다.
 (나) 문화는 각기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절대적 기준에 따라 문화의 우열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문화를 단순히 우수 또는 열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조건]
 - (가)와 (나)의 의견을 절충할 것
 - 구체적인 사례를 들 것
 -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 것

- ① 오늘날 선진 사회의 문화는 이미 문명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에 비해 아직도 많은 다른 사회의 문화는 문명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명의 단계는 야만의 단계보다 더 발달된 문화로 파악해야 한다.
- ② 다른 사회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절대적 가치 기준에 의한 판단을 버리고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재미와 배짱이의 우화는 우리나라에서는 배짱이를 도와주지만 서양에서는 내쫓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 ③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한 문화를 그 사회 자체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문화 이해의 기본 관점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는 각 나라마다 해석을 달리하여 그들을 평가한다.
- ④ 역사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향한 끝없는 진행의 과정에 있다. 그리고 한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여러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 ⑤ 사회 구성원은 그들의 문화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지면서도 다른 문화의 가치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독특한 표현을 다듬으면서 외국어를 활용한 표현도 수용해야 한다.

11. <보기>의 이야기를 바꿔 쓰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느 날 한 수도권장이 두 수사에게 들에 나가 밀을 거두는 임무를 맡겼다. 첫 번째 수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밀을 베었다. 그러나 두 번째 수사는 한 시간마다 쉬면서 일했다. 일을 다 마치고 두 사람이 쌓아 올린 단을 보니 시간마다 쉬면서 일한 수사의 단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그는 툴툴이 쉬면서 낫을 갈았던 것이다.

- ① 나는 이 이야기의 서술 시점을 바꿔 보겠어. 두 번째 수사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자신의 삶의 태도를 직접 드러내도록 해야지.
- ② 나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보겠어. 첫 번째 수사는 유연한 사고를, 두 번째 수사는 경직된 사고를 지닌 인물로 부각시켜 볼 거야.

- ③ 나는 이 이야기를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겠어. 주어진 과제를 이루기 위해 무턱대고 공부하는 학생과,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을 대비해 이야기를 꾸며 볼 거야.
- ④ 나는 이 이야기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내용을 추가해 보겠어. 두 번째 수사가 수도권장에게 칭찬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보태어, 두 번째 수사의 일하기 태도에 가치를 부여해야지.
- ⑤ 나는 이 이야기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겠어. 두 수사가 쌓아올린 단을 서로 비교하는 장면을 설정하고, 일의 결과에 무척 놀라는 첫 번째 수사의 표정도 자세히 나타낼 거야.

12. <보기>의 ㉠~㉣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 기>

저는 책임감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교내 축제 기간에 각 학교를 방문하여 홍보 포스터를 붙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모두가 귀찮아하며 ㉠꺼려지는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매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밤을 새워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몸은 ㉣고됐지만,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 자신을 가꾸고 전체의 행복을 위하는 ㉤길입니다.

- ① ㉠은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므로 '꺼리는'으로 바꿔야겠어.
- ② ㉡은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 ③ ㉢은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므로 '밤을 새서'로 바꿔야겠어.
- ④ ㉣은 '고되었지만'의 준말이므로 '고됐지만'으로 바꿔야겠어.
- ⑤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13.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 예로 잘못된 것은? [1점]

- ① 옷매무새를 반듯이 하고, 반드시 시간에 맞 어 오너라.
- ② 꿈지를 슬슬 빼는 네 모습이 마치 꿈무니 빠진 수탉 같구나.
- ③ 김장 배추를 절이느라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발이 저리다.
- ④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야, 오늘 안으로 마련할 테니 이따가 오너라.
- ⑤ 비록 두꺼운 벽에 둘러싸여 살더라도 이웃간의 정만은 두텁게 유지합시다.

14. <보기>는 표준 발음법 규정의 일부이다. 발음법에 어긋난 것은?

<보 기>

제10항 겹받침 ‘ㄸ’, ‘ㄴ’, ‘ㄹ’,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ㄷ] 으로 발음한다.
 다만, ‘ㄹ-’은 자음 앞에서 [ㄹ] 으로 발음하고, ‘ㄹ-’은 ‘ㄹ-죽하다’와 ‘ㄹ-등글다’의 경우에 [ㄹ] 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ㄹ’, ‘ㄷ’,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ㅌ] 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 로 발음한다.

- ① ㄹ다 [널따] ② ㄹ고 [목꼬] ③ ㄹ다[할따]
- ④ ㄹ다 [막따] ⑤ ㄹ고 [읍꼬]

[15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 어릴 적 산골 학교 미술 시간에
나는 푸른 크레용으로 옥토끼 모양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놓고 그 안에 울긋불긋 우거진
단풍잎과 맑은 시내를 그렸었다.
산머루향이 교실까지 날아들던 오후
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처녀 선생님은
가을 산꽃이 지고 해어름이 일고
그 가을내 나는 선생님의 눈물방울과 같은
단풍잎과 맑은 시냇물 속에 뛰놀았지만
돌아서서 눈물 훔치던 선생의 뒷모습과
㉠ 나를 쳐다보던 충혈된 눈동자를 잊을 수 없었다.

그래 단풍잎은 지고 세월은 가고
이제는 선생이 된 내 앞에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그림을 그린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슬픔의 푸른 크레용으로
둘러친 동강 난 내 땅 내 그리운 하늘
아이들은 평상의 얼굴로
반쪽의 땅 위에 단풍잎을 채우고
나는 충혈된 눈으로 아이들을 보았다.
눈을 뜨고 모른다면 살아온 날들이 가슴 후비는 날
가만히 손가락으로 그려보는 내 땅 내 그리운
하늘 아래 나는 이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내 손으로 그린 내 땅 안에 허름하게 시든
단풍잎 하나 떨구는 것을 거부하면서
㉡ 끝내는 잊혀진 옛 선생님의 눈물마저 되살아나
동강 난 눈물방울들이 산과 바다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뒤덮었다.
- 광재구, '20년 후의 가을' -

(나) 산새도 날아와
우짚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 끊인 곳
홀로 앉은
㉢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
빈 골 골을 되돌아올 뿐.

산그늘 길게 늘이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삶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냐?

- 박두진, '도봉' -

(다) 산자락 덮고 잔들
산이겠느냐.
산그늘 지고 산들
산이겠느냐.
산이 산인들 또 어찌겠느냐.
아침마다 우짚던 산까지도 이제는
간 데 없고
저녁마다 문살 굽던 다람쥐도 지금은
온 데 없다.
길 끝나 산에 들어섰기로
그들은 또 어디 갔단 말이나.
어제는 온종일 진눈깨비 뿌리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내리는 폭설.
㉤ 빈 하늘 빈 가지엔
홍시 하나 떨 뿐인데
어제는 온종일 난을 치고
오늘은 하루 종일 물소릴 들었다.
산이 산인들 또
어찌겠느냐.

- 오세영, '겨울노래' -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드러나 있다.
- ② (나)에는 담담한 어조로 그리움과 짙은 우수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와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정의 추이가 표현되어 있다.
- ④ (나)와 (다)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가)~(다)에는 현재의 결핍 상태를 보상받기 위한 장치로 이 상향이 설정되어 있다.

16. 다음을 (가)의 창작 노트라고 할 때, 시인이 고려했을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시상전개면	현재와 과거 상황을 중첩시켜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야지. ①
• 소재 면	일상 생활과 연관된 소재를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여야지. ②
• 표현 면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대 상황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해야지. ③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선명하게 전달해야지. ④
• 주제 면	분단 상황을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접근하여 공감의 폭을 넓혀야지. ⑤

17. (나) 화자의 심리적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함께 잡은 손으로 따스하게 번져오는 / 온기를 주고받으며 / 걸음을 벗어 그대에게 가는 찬바람 막아주고 / 얼어붙은 내 불을 그대의 불로 감싸며/ 겨울을 이겨내는 / 그렇게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 도중환,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
- ② 저녁 해는 지고서 어스름의 길, / 저 먼 산엔 어두워 잃어진 구름, / 만나려는 심사는 웬 셈일까요, / 그 사람이야 올 길 바야 없는데, / 발길은 누 마중을 가잔 말이나. / 하늘엔 달 오르며 우는 기러기
- 김소월, '만나려는 심사' -
- ③ 이맘때쯤 다시 만나기로 하자. / 이제 여기서 헤어지고 나면 / 가을 깊어가고 겨울이 오고 / 또 몇 백년 강물이 흐른 뒤 / 야무나 강이든 갠지스강이든 / 저 멀리 남한강이든 / 그 강물 흘러가는 / 어디쯤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자.
- 오탁번, '타지마할' -
- ④ 강가에서 / 세월이 많이 흘러 / 세상에 이르고 싶은 강물은 / 더욱 깊어지고 / 산그림자 또한 물 깊이 그윽하니 / 사소한 것들이 아름다워지리라. / 어느 날엔가 / 그 어느 날엔가는 / 떠난 것들과 죽은 것들이 / 이 강가에 돌아와 / 물을 따르며 / 편안히 쉬리라.
- 김용택, '강가에서' -
- ⑤ 나는 그대 등뒤로 내리는 / 봄눈을 바라보지 못했네. /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 그대 텅 빈 가슴의 말을 듣지 못했네. / 새벽은 멀고 / 아직도 바람에 별들은 즐리고 / 내 가슴 사이로 삭풍은 끝이 없는데 / 나는 그대 운명으로 난 길 앞에 흘날리는 / 거친 눈발을 바라보지 못했네.
- 정호승, '봄눈' -

18.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산'은 고독과 단절의 공간이므로 허무감을 느낄 수 있어.
- ② 화자의 어조를 통해서 열정적인 삶의 자세를 느낄 수 있어.
- ③ 설의적 형식을 통해 나타난 화자의 달관적 정신세계를 느낄 수 있어.
- ④ 한 폭의 동양화 같이 묘사된 풍경 속에서 여백의미를 느낄 수 있어.
- ⑤ 일상적 삶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화자의 내면을 느낄 수 있어.

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분단 상황에 대한 선생님의 현실 인식을 나타낸다.
- ② ㉡ :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 ③ ㉢ : 가을 산의 풍경을 통해 화자의 고독한 내면세계를 드러낸다.
- ④ ㉣ : 황혼이 되면 다가올 평온과 안식의 시간을 의미한다.
- ⑤ ㉤ : 화자의 정황을 '홍시'라는 객관적 상관물로 표현하고 있다.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옥포산에 사는 장선생(노루)이 황제로부터 승록대부의 벼슬을 받아 이를 자축하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에는 산짐승들의 왕인 호랑이를 제외한 모든 짐승들이 초대되었다. 그런데 호랑이가 자리에 없자 모든 짐승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다툰다.

두꺼비는 그 말을 듣고서야 펄쩍 뛰어 초대받은 손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 여우는 두꺼비에게 상좌(上座)를 빼앗기고 화가 나서 말했다.

“두껍 어른께서는 연세(年歲)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구경을 많이 하셨을 것이니 어디어디를 구경하셨나이까?”

“내 구경한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니 내가 구경한 곳부터 말해 보거라.”

여우가 결심을 굳힌 듯이 말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곳을 아니 구경한 곳이 없소. 동쪽으로는 태산이며 서쪽으로는 화산이며 남쪽으로는 형산이며 북쪽으로는 향산을 구경하였소. 꽃이 피고 따스한 바람이 부는 봄과 오색의 낙엽이 지는 맑은 가을날에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바다를 둘러본 다음 요동을 지나 조선을 향하여 평안도로 갔소. 이 곳에 오니 강산도 참으로 아름답게 생겨서 내가 본 중에 그 경치가 으뜸이 었소. 연관정과 부벽루는 대동강이 둘러 있고 관봉이 표표하고 모란봉이 들렸으니 그 아니 거룩한가. 송도를 지나 한양을 바라 보니 한강수 둘러 있고 관악산이 막혔으니, 산도 아름답고 지세도 웅장하다. 동해를 건너 뛰어 일본을 바라보고 대마도를 지나 강호를 들어가니 인물도 절묘하고 산천도 아름답다. 역력히 다 본 후에 도로 조선을 건너와 관동팔경을 구경하고 압록강을 건너 오니, 이만하면 사해 팔방을 다 구경하였으매 내 구경은 이러하 거니와 존장(尊長)은 얼마나 구경하셨나이까.”

두꺼비가 눈을 꿈쩍이며 가만히 대답했다.

“네 구경인즉 무던히 하였다마는 풍경만 구경하고 돌아왔도다. 대저 천하별건곤과 산천풍속이 다 근본 출처가 있느니라. 근본을 다 안 후에야 구경이 무식치 않으리라. 어른이 이렇거늘 젊은 소년들은 근본 출처를 들어 보라. 내 구경한 바는 사해 안에만 이르지 않고 사해 밖으로 팔방을 모두 방방곡곡 안 본 데 없거니와, 중국 너른 곳을 모두 둘러보고 조선국으로 들어섰으니, 네 구경은 많이 한 체하나 진실로 두더지 (㉠) 같고 하룻강아지 서울 다녀온 격이라.”

여우가 어이없이 물러앉으며 물었다.

“그러하면 존장은 하늘 구경도 하셨나이까?”

“너는 하늘을 구경하였는가?”

“하늘은 구경한 지 오래지 않으니 삼 년 삼 일에 보았노라.”

“그러하면 구경한 것을 낱낱이 아뢰어라.”

여우란 놈이 구경한 체하고 콧살을 찡그리며 공손히 대답했다.

“내 하늘에 올라 묘연히 삼십삼천을 두루 구경하고, 다시 서천으로 가니 이는 극락세계라. 그 곳을 나오다가 본즉 이는 지옥이라. 낮이 밤 같고 얼음 같아 음랭한 기운이 골수에 사무치는지라. 그 문 위에 글자가 써어 있었는데 한편은 용마지옥이요, 또 한편은 비산지옥이요, 또 한편은 철요지옥이라.”

(중 략)

“노인이 품속에서 붉은 구슬을 주며, ‘구슬 한 개를 삼키면 산수에 다닐 때 몸이 변화하느니라’ 하거늘 받아 삼키고 그 길로 인간에 내려오니 정신이 쾌락하고 변화하였노라.”

하니 두꺼비가 말했다.

“그러면 그때 나도 보탑상에 올라가 남극 노인성과 더불어 바둑을 두다가 술에 대취하여 난간에 의지하였더니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이 깨어 동자더러 물으니, 동자 크게 대답하기를 ‘밖에 어떤 짐승이 빛은 누렁고 입은 뽕죽하고 도적개 모양 같은 것이 똥밭에 왔사옵습니다.’ 하거늘 동자에게 명하여, ‘긴 장대로 쫓으라’ 하였더니 그때 네가 왔던 모양이다. 네가 온 줄 알았더라면 천일주(天日酒) 먹은 똥덩이나 먹여 보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하니, 좌중이 박장대소(拍掌大笑)하더라.

우습다. 여우가 간사한 말로 천만 가지로 꾸며 말을 하면서 두꺼비를 속이려 했다. 그러나 결국은 거꾸로 창피를 당하고 화가 나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입맛만 쪽쪽 다셨다.

- 작자 미상, ‘두껍전’ -

20. 위 글에서 두꺼비의 대응 전략으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여우의 약점을 들춰내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
 - ② 여우의 지식을 얕잡아 보며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뽐내고 있다.
 - ③ 여우가 먼저 말을 하게 한 후, 이를 되받아치는 방법을 쓰고 있다.
 - ④ 여우의 말을 인정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 ⑤ 여우의 관념적 지식에 맞서 자신의 실제 경험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21. <보기>와 관련하여 볼 때, ‘여우’가 대변하는 인물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우화소설은 향촌(鄉村) 사회를 배경으로, 봉건사회의 해체와 근대로의 이행 요구가 집약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동물들을 통해 조선 후기 현실의 계층관계를 암시□ 풍자한다고 볼 때, 잔치를 주재했던 장선생(노루)은 부(富)의 축적으로 새롭게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켜 나가는 부민(富民)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① 향촌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정치가
 - ② 향촌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력을 와해시키려는 매개자
 - ③ 향촌 사회에서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 반발하는 신흥 상인 계층
 - ④ 향촌 사회에서 점차 주도권을 빼앗기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계층
 - ⑤ 향촌 사회에서 계층 간의 갈등으로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변인
22. <보기>가 위 글의 결말이라고 가정할 때,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연회의 초대에서 제외되었던 백호산군(호랑이)이 쳐들어와 온갖 짐승이 놀라 숨는다. 백호산군이 등장하자 장선생(노루)의 부탁을 받은 여우는 백호산군에게 군신지례(君臣之禮)로 설득하여 백호산군을 돌려보내고, 나이 많은 체하며 상좌에 올랐던 두꺼비는 모래 속으로 숨어버린다.

- ① 여우는 신분의 상승을 위해 호랑이에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군.
- ② 노루는 자신으로 인해 빚어진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말벗고 나섰군.
- ③ 호랑이와 노루는 서로 싫어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군.
- ④ 호랑이는 자신을 무시한 것이 노루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얼굴이 붉어져 돌아갔군.
- ⑤ 두꺼비는 상좌를 차지하려고 온갖 언변을 동원하더니 결국 간이 콩알만 해져 도망치고 말았군.

23.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수박 겉 핥기
 - ② 제 눈에 물대기
 - ③ 누워서 침 뱉기
 - ④ 땅 짚고 헤엄치기
 - ⑤ 눈 가리고 아웅하기

[29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 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닷곤 아즐가 닷곤 쇼성경 고 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여 므론** 아즐가 여 므론 질삼뵈 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괴시란 아즐가 괴시란 우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 작자미상, '서경별곡(西京別曲)' -

* 고 마른 : 사랑하지마는
 ** 여 므론 : 이별하기보다는

(나) 紫布岩乎邊希 자줏빛 바윗가에
 執音乎手母牛放教遣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吾胯不喻慚盼伊賜等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花勝折叱可獻乎理音如 ①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 견우노옹, '헌화가(獻花歌)' -

(다) 버스 안은 붐비지 않았다. 손님들은 모두 앉을 자리를 얻었고, 안내양만이 홀로 서서 반은 즐고 있었다. 차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 어린이 하나가 그 앞으로 확 달려들었다. 버스는 급정거를 했고, 제복에 싸인 안내양의 몸뚱이가 던져진 물건처럼 앞으로 쓸렸다. 찰나에 운전기사의 굵직한 바른팔이 번개처럼 수평으로 쪽 뻗었고, 안내양의 가는 허리가 그 팔에 걸려 상체만 앞으로 크게 기울었다. 그녀의 안면이 버스 앞면 유리에 살짝 부딪치며, 입술 모양 그대로 분홍색 연지가 유리 위에 예쁜 자국을 남겼다. 마치 입술로 도장을 찍은 듯이 선명한 자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운전기사는 묵묵히 앞만 보고 계속 차를 몰고 있었다.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그가 멋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예술과도 같은 그의 숨씨도 멋이 있었고, 필요 없는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그의 대범한 태도도 멋이 있었다.

멋있는 사람들의 멋있는 광경을 바라볼 때는 마음의 창이 환히 밝아지며 세상 살맛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요즈음은 멋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꿈에 떡맛 보듯 어려워져서, 공연히 옛날 이야기에 향수와 사모를 느끼곤 한다.

(중 략)

멋있는 사람의 소유자를 만나 보고자 밖으로만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멋있는 삶을 갖도록 노력하는 편이 더욱 긴요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뉘우쳐 보기도 한다. 멋있는 사

람과 만나는 것도 삶의 맛을 더하는 길이겠지만, 내 자신의 생활 속에 멋이 담겼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위가 온통 멋없는 세상인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내 마음 속에 멋을 가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을 가린다. 그런 생각부터 앞서는 것 자체가 아마 내 사람됨의 멋없음을 말해 주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현실을 암흑에 비유하고 세상을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결국은, “네 운명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니체는 멋있는 철학자였다. 어느 시대인들 세상 전체가 멋있게 돌아가야 했으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를 가나 으레 속물과 속기(俗氣)가 판을 치게 마련이다. 세상이 온통 속기로 가득 차 있기에 간혹 나타나는 멋있는 사람들이 더욱 돋보일 것이다.

힘도 없는 주제에 굳이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주어진 현실을 주어진 그대로 조용히 바라보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작은 웃음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멋이라면 멋이요, 멋이라면 맛이 아닐까.

- 김태길,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 -

29. (가)~(다)를 활용하여 '문학의 향기'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보기>와 같이 토의하였다.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	
◦ 첫 번째 작품은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좋을 까?	우리의 전통적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가)를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애절한 느낌의 음악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①
◦ 두 번째 작품은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좋을 까?	(가)에서 먼 곳을 응시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 뒤, 낭만적인 분위기의 연출을 위해 바위에 핀 꽃을 화면 가득 담아서 (나)를 소개해 보자. ②
◦ 세 번째 작품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 까?	(나)가 끝날 무렵, 이야기의 소재를 현대인의 삶으로 바꾸면서 버스 안의 풍경을 그린 삽화로 (다)를 시작해 보자. ③
◦ 작품은 어떤 목소리로 읽는 것이 좋을 까?	작품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활용하되, (가)는 울먹이는 여성의 목소리, (나)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 (다)는 차분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어. ④
◦ 작품의 중심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좋을 까?	각 작품의 주제를 화면의 하단에 제시하되, (가)의 경우에 주제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후렴구'를 다른 색으로 추가하여 제시하겠어. ⑤

30. <보기>를 참고로 하여, (가)~(다)를 비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모든 문학 작품은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을 관련시켜 나타낸다. ‘있는 것’은 인물이 처한 현실 상황이며, ‘있어야 할 것’은 인물이 지향하는 세계이다. 그리고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은 작품에 따라서 서로 ‘융합’될 수도 있고 ‘상반’될 수도 있다. ‘융합’은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의 조화를 말하며, ‘상반’은 둘 사이의 갈등을 의미한다.

- ① (가)에는 이별의 상황에서 만남을 지향하는 애절함이 드러나므로 비장미가 느껴진다.
- ② (나)에는 그리운 사람과의 만남과 소원 성취에 대한 욕망이 드러나기에 비장미가 느껴진다.
- ③ (다)에는 주관적 체험을 통한 삶에 대한 성찰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기에 골계미가 느껴진다.
- ④ (가)와 (나)에는 올바른 삶의 태도와 현실적 이익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므로 숭고미가 느껴진다.
- ⑤ (나)와 (다)의 화자는 부정적 시대 상황을 미래 지향적 태도로 극복함으로 우아미가 느껴진다.

31. (가)~(다)의 화자가 <보기>의 ‘아가씨’에 대해 나눌 수 있는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十五越溪女 열다섯 살의 아리따운 아가씨
 羞人無語別 다른 사람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헤어지네.
 歸來掩重門 돌아와 겹문을 닫아 걸고는
 泣向梨花月 배꽃처럼 하얀 달을 보며 눈물 흘리네.
 - 임제, ‘무어별(無語別)’ -

- ① (가)의 화자 : 사랑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랍니다.
- ② (나)의 화자 : 맞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면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 ③ (다)의 화자 : 글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가씨의 태도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 ④ (가)의 화자 : 그건 아니죠.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라도 쫓아가야 하는데, 조용히 있다고 누가 그 마음을 알아줍니까?
- ⑤ (다)의 화자 :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 홀로 멋지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도 좋다는 말입니다.

32. (가)를 감상하는 관점이 다른 것은?

- ① ‘서경(西京)’을 통해서 작품의 창작 시기를 짐작해 본다.
- ② ‘괴시란’에서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해 본다.
- ③ ‘질삼뵈 리시고’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추리해 본다.
- ④ ‘여 트론’과 ‘괴시란’를 통해 사랑을 대하는 현대인의 태도를 반성해 본다.
- ⑤ ‘쫓니노이다’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던 시대 상황을 상상해 본다.

33. ㉠의 기능과 유사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1점]

<보 기>

인도의 신 ‘부라마’의 아들 ‘비시누’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늙은 모습으로 변장한 ‘비시누’는 ‘나자나’ 공주가 문지기와 사랑에 빠졌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 ‘비시누’는 문지기 청년을 찾아가 산속 느티나무 아래에 핀 꽃을 따다가 임금에게 바치면 공주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 청년이 꽃을 찾아 나선 후 공주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임금은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문지기 청년은 자신이 따온 꽃으로 공주의 병을 고치고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문지기가 따온 꽃은 ‘순수한 사랑’의 꽃말을 지닌 난초였다.

- ① 비시누 ② 느티나무 ③ 이름 모를 병 ④ 결혼 ⑤ 난초

34. (다)를 읽은 후, <보기>의 장면을 바라본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 ①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야,
- ② 누구나 말하기 힘든 단점이 있거든. 자신의 장점을 꾸준히 개발하며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 ③ 인생의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야. 남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외모를 가꿔야 하지 않을까?
- ④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가 어렵더라고. 잠깐의 여유를 즐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이야.
- ⑤ 아름답게 사는 것보다 명예롭게 사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잖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35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대 사회에서 스타는 대중문화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스타가 생산, 관리, 활용, 거래, 소비되는 전체적인 순환 메커니즘이 바로 스타 시스템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대중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로 자리 잡게 되면서 사람들은 스타 되기를 열망하고, 또 스타 만들기에 진력하게 되었다.

스크린과 TV 화면에 보이는 스타는 화려하고 강하고 영웅적이며, 누구보다 매력적인 인간형으로 비춰진다. 사람들은 스타에 열광하는 순간 스타와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며 그 환상적 이미지에 ㉠ 빠진다. 스타를 자신들이 스스로 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을 대리 충족시켜 주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장르가 영화이다.

[A] 영화는 어떤 환상도 쉽게 먹혀들어 갈 수 있는 조건에서 상영되며 기술적으로 완벽한 이미지를 구현하여 압도적인 이미지로 관객을 끌어들이는다. 컴컴한 극장 안에서 관객은 부동 자세로 숨죽인 채 영화에 집중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영화가 제공하는 이미지에 매료된다. 그리고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영화 속의 주인공과 동일시하게 된다. 관객은 매력적인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잊고 이상적인 인간형을 간접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스크린과 TV 화면에 비친 대중이 선망하는 스타의 모습은 현실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허구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스타 역시 어쩔 수 없는 약점과 한계를 안고 사는 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쉽게 망각해 버리곤 한다. 이렇게 스타에 대한 열광의 성립은 대중과 스타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익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서 가능해진다.

자본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필요 이상의 물건을 생산하고 그것을 팔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욕망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스타는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들도 상품처럼 취급되어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스타 시스템은 대중 문화의 안과 밖에서 스타의 화려하고 소비적인 생활 패턴의 소개를 통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게 된다. 또한 스타들을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며, 끊임없이 오락과 소비의 영역을 확장하고 거기서 이윤을 발생시킨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많은 대중이 스타를 닮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 스타의 패션과 스타일, 소비 패턴을 모방하기 때문이다.

스타 시스템을 건전한 대중 문화의 작동 원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 문화 산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 공간과 유통 구조를 확보하여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벌일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예술 인력을 스타 시스템과 연결하는 중간 메커니즘도 육성해야 할 것이다.

35. 위 글의 논지 전개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이론을 제시한 후 절충적 견해를 이끌어내고 있다.
- ②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를 들어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 ④ 대상을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논의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있다.
- ⑤ 현상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인간은 자기에게 욕망을 가르쳐주는 모델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키워 간다. 이런 모델을 ㉠ '욕망의 매개자'라고 부른다. '욕망의 매개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욕망이 '대상-주체'의 이원적 구조가 아니라 '주체-모델-대상'의 삼원적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 '욕망 주체'와 모델은 ㉢ '욕망 대상'을 두고 경쟁하는 ㉣ '욕망의 경쟁자'이다. 이런 경쟁은 종종 욕망 대상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과대 평가된 욕망 대상을 소유한 모델은 주체에게는 ㉤ '우상적 존재'가 된다.

- ① ㉠은 ㉡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하는 인물이다.
- ② ㉡는 스타를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③ ㉢는 ㉡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대상이다.
- ④ ㉣는 ㉠과 ㉡가 동시에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다.
- ⑤ ㉤는 ㉡의 진짜 모습을 잊게 하는 환상적인 인물이다.

37.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그렇게 순해 빠져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 ② 너는 옷을 쪽 빠지게 차려입고 누구를 만나러 가니?
- ③ 그는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날 줄을 모른다.
- ④ 그녀는 청운동 너머 세검정으로 빠지는 언덕으로 달려갔다.
- ⑤ 그는 피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긴 겨울을 슬픔에 빠져 지냈다.


38. 위 글에 대한 비판적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중과 스타의 관계가 익명적 관계임을 근거로 대중과 스타의 관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어.
- ② 스타 시스템이 대중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는 데 치중하여 스타 시스템의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어.
- ③ 스타 시스템과 스타가 소비 대중에게 가져다 줄 전망만을 주로 다룸으로써 대책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어.
- ④ 스타를 스타 시스템에 의해 조종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그들도 주체성을 지니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 ⑤ 대중이 스타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면을 지적하여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에 급급하고 있어.

39. 위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작하였다. [A]와 관련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애니메이션03-003

페이지 번호 : 04

장면	비디오	오디오
S# 04		음악 (BGM)
		음향 효과
		성우
		남자 : (눈물을 흘리며) 너는, 내 목숨이었다. 너와 함께 숨쉬며 살고 싶었는데..... 여자 : (눈물을 흘린다)
자막		
화면 설명	연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바라보고 있다.	
유의점	장면전환 : Cross Dissolve 촬영기법 : 젊은 남녀로 Zoom In - Close Up	

자료 화면





- ① 제작자가 의도한 인물의 행위와 연기자의 행위가 왜 일치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어.
- ② 영화에 심취된 관객을 포함한 화면은 스타와 대중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어.
- ③ 영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좌석에 멍하니 앉아 있는 관객은 자신을 망각하고 매력적인 대상에 사로잡힌 거야.
- ④ 연출된 화면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분위기가 소비 대중을 스타의 환상에 매료되게 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어.
- ⑤ 여러 부분으로 나뉜 스토리 보드를 통해 화면에 보이는 스타 뒤에는 관객을 사로잡기 위한 제작자의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어.

[40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마천루들을 두고 어떤 이들은 부의 상징이라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좁은 땅을 활용하기 위한 경제적 방법이라 하기도 하지만, 건축가들은 ‘현대 건축의 꽃’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수천 년 동안 터득한 지혜와 첨단 기술이 고층 건물의 구조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다.

구조물은 외력에 대해 적절한 저항력을 가져야 본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층 건물에 작용하는 외력은 대체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중력에 의한 연직하중으로, 건물의 자체하중, 건물 안에

적재된 가구와 사람들의 무게 등이 이에 속한다. 건물의 높이와 층수가 높아질수록 무게는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중력작용에 의한 연직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맨 아래층은 넓게 하고 꼭대기로 갈수록 점점 면적을 감소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건물에 작용하는 두 번째의 외력은 바로 바람이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바람의 세기가 증가한다. 꼭대기로 갈수록 주변 건물에 의한 저항력이 감소하므로 바람의 속도가 제법 크다. 또한 바람과 더불어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의 밀동이 흔들리게 되고, 이 때 뉴턴의 법칙에 따라 건물의 질량과 지진에 의한 건물 밀동 가속도가 곱해져 하중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외력에 저항하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고층 건물 구조 설계의 핵심이다. ㉠ 인간은 종종 자연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되는데, 고층 건물 구조의 효율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키가 큰 나무다. 자연은 나무의 형태와 구조를 통해 고층 건물 구조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큰 나무는 밀동의 단면적이 크고 나무 뿌리가 나무의 줄기만큼이나 깊고 넓게 뻗어 있다. 이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의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으며,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일반적인 나무가 속이 딱 차 있는 것과 달리, 건물은 내부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 속이 비어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속을 완전히 비워 원통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건물의 안정성에도 매우 유리하다. 건물은 또한 창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둘레에 적당한 개구부가 필요하다. 결국 건물 외피에 구멍이 난 튜브가 고층 건축 구조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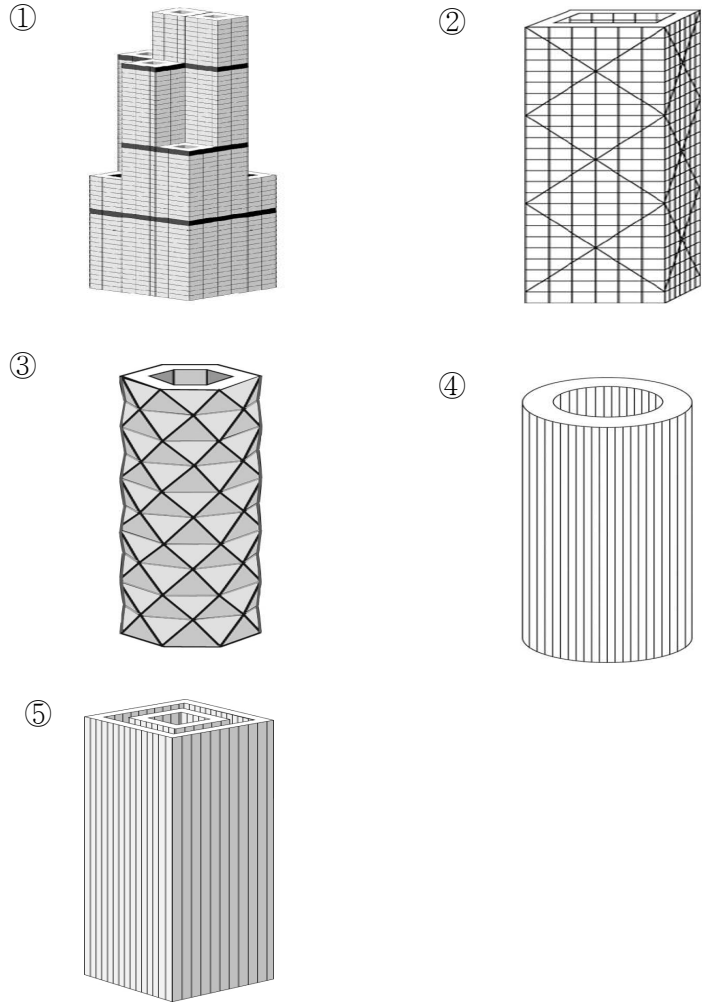
이와 같이 간단한 개념을 고층 건물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튜브 시스템’이라 불리는 고층 구조 시스템이다. 여의도에 있는 쌍둥이 빌딩과 ㉡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바로 튜브 시스템을 이용한 고층 구조물로, 바람과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수평 방향의 힘은 튜브형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중력 방향의 힘은 건물 안쪽에 위치한 몇 개의 수직 기둥으로 견디게 만들었다.

근래에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튜브로 만들어 횡력에 저항하는 방법 외에도 몇 개의 튜브를 묶은 형태, 튜브의 안쪽에 다시 튜브를 배치한 형태, 그리고 바깥쪽에 대각선 방향으로 제법 큰 가새를 덧대서 횡력에 더욱 강한 구조를 만드는 등 기본적인 튜브 시스템을 변화시킨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40. 위 글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논의 대상	고층 건물의 구조 시스템	①
◦ 고층 건물의 안정성	외력에 대한 저항성과 관련	--
◦ 외력의 종류	중력에 의한 연직하중, 바람	
◦ 연직하중의 극복 방안	위로 갈수록 면적을 감소시킴	③
◦ 바람의 극복 방안	뉴턴의 법칙을 활용	-----
◦ 고층건물구조 효율적 모델	키가 큰 나무	-----
◦ 고층건물에 적합한 시스템	튜브 시스템	

41. 튜브 시스템을 이용한 건물의 구조를 단순화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A]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42.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누에에서 명주실을 뽑아 비단을 생산한다.
- ② 곤충의 더듬이를 응용하여 레이더를 제작한다.
- ③ 거북의 갑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거북선을 만든다.
- ④ 새의 비행을 관찰하여 하늘을 나는 기계를 고안한다.
- ⑤ 물고기의 동작을 연구하여 유선형의 선체를 설계한다.

43. <보기>와 관련지어 ㉡의 붕괴 원인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현대 건축의 상징물이었던 세계무역센터가 수직으로 힘없이 주저앉았다. 이 빌딩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제기되는 의문은 세 가지다.

첫째, 보잉 767 여객기가 충돌한 것은 110층 건물의 60층과 85층 근처였다. 그런데 상층부만 무너지지 않고 왜 건물 전체가 주저앉았는가 하는 점, 둘째, 충돌 즉시 무너지지 않고 왜 시간이 경과한 뒤 주저앉았는가 하는 점, 셋째, 첨단 철골구조인 ‘튜브구조’가 왜 견디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 ① 철골구조가 지진, 바람 이외의 다른 요소에 약한 것은 아닐까.
- ② 건물 밑 부분의 단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 ③ 위로 갈수록 면적을 줄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 ④ 건물 외피에 구멍이 난 튜브가 붕괴의 원인은 아닐까.
- ⑤ 인간의 첨단 기술도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44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자는 말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그 실용적 목적에 따라 발생하였고 점차 편리와 능률위주로 간략화되어 왔다. 한자에서 여러 서체가 발생하고 정비되었던 것이 바로 그 실례이다. 그러나 붓만을 사용하던 옛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다양한 필기구와 컴퓨터에 떠밀려 붓글씨는 주로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붓글씨는 건축, 공예, 복식 등과 같이 실용적 목적에서 출발했으면서도 어떤 미적 추구의 대상으로 자리잡은 실용예술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붓글씨는 점획이란 형태와 필선이란 질량으로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 필선의 질량, 곧 선질은 글씨의 두드러진 특성이자 글씨 감상의 궁극적 대상이기도 하다. 선질은 글씨의 표정과 분위기를 이루는 주된 요소로서 붓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여 점획에 생명력과 미감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점을 어떻게 찍고 획을 어떻게 긋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좋은 선질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점획을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여러 명인들이 제창하였다고 하는 ‘영자 팔법(永字八法)’을 이해하여 운용의 원리를 터득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점획 법은 ㉠ 해서(楷書)를 쓰는 데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서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서체의 발생 과정과 역사적 변천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 두루 수련해야 한다.

붓글씨는 먹으로 표현된 필선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탕인 여백(餘白)으로 구성된다. 곧, 종이나 천 등의 바탕에 붓으로 먹물을 어떻게 처리하였느냐와 점획□짜임□행 등을 어떻게 구성하여 여백을 처리하였느냐가 글씨의 기본 틀인 것이다.

그런데 바탕에 ㉡ 뻥 먹물은 단순한 무채색의 검정이 아니라 다채로운 검은 색을 띤다. 먹은 산소의 공급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나무를 불완전 연소시켜 얻은 검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검다. 하지만 나무의 종류나 연소 방법의 차이 또는 물과의 조합 비율에 따라 미미하게 흑자색이나 암청색 등의 다양한 색깔을 띠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서예가들은 먹색을 무채색으로서의 검정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색깔을 지닌 진귀한 것으로 여긴다. 또한 여백은 단지 글씨를 쓰고 난 뒤에 남은 것이 아니라 글씨를 쓰기 전에 전체적인 구성과 글자의 짜임 등을 고려하여 제작자의 심미안(審美眼)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다. 곧, 먹색이 글자를 나타내는 주역이라면 여백은 그것을 지탱해 주고 감싸주며 먹색의 효과를 한층 높여 주는 조역인 셈이다. 따라서 이 양자를 잘 조화시킨 글씨야말로 감상자의 눈을 이끄는 성공작이 된다.

그림에서는 여러 번의 붓질로 형상을 묘사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붓질을 더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글씨에서는 가필(加筆)이나 보획(補劃) 등의 행위를 꺼리는 전통이 있다. 이는 처음 썼을 때의 먹물 농도, 운필의 속도, 종이에 가해진 붓의 압력(壓力) 등이 결코 똑같이 재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처음 썼을 때에 지녔던 제작자의 심리 상태까지 똑같이 재현될 수는 없다. 곧, 글씨에는 서사 도구(書寫道具)와 표현 기법 이외에도 쓰는 사람의 기분, 성격, 취향, 정서 등의 심리 상태에 따라 표현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심리 상태를 자연스럽게 뚜렷하게 표출한 글씨는 가치 있게 평가되며, 그런 글씨에서 여러 가지 미적 요소를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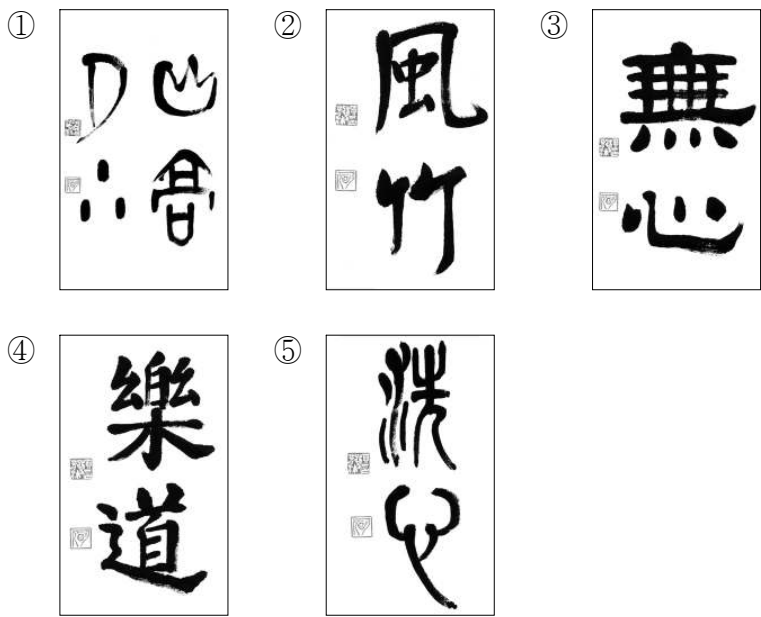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붓글씨 감상의 궁극적 대상은 점획이다.
- ② 붓글씨에 사용되는 먹물은 다채로운 검은 색을 띤다.
- ③ 붓글씨를 쓸 때에는 여백의 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붓글씨에는 글씨를 쓰는 사람의 심리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붓글씨는 오늘날 실용적인 면보다 예술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45.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서체는? [1점]

<보 기>

정서(正書) 혹은 진서(眞書)라고도 하며, 일점일획(一點一劃)을 정확히 독립시켜 쓴 서체로 글자의 변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인들이 평상시 사용하기에 불편하였던 글자체에 대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예서(隸書)를 대신하여 생겨난 글자체이다.



46. <보기>는 사전의 뜻풀이다. ㉡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보 기>

배다¹ ㉠
 ㉠ 스며들거나 스며 나오다. ㉡ 옷에 땀이 배다.
 ㉢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다. ㉣ 일이 손에 배다.
 ㉤ 냄새가 스며들어 오래도록 남아 있다. ㉥ 향수 냄새가 옷에 배었다.
 ㉦ 느낌, 생각, 따위가 깊이 느껴지거나 오래 남아 있다. ㉧ 농약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배어 있다.

배다² ㉡
 ㉡ 사람의 근육에 뭉친 것과 같은 것이 생기다. ㉢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했더니 다리에 알이 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7. 위 글의 내용을 심화 학습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예가들이 가필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본다.
- ② 붓글씨의 다양한 표현 기법에 대해 조사해 본다.
- ③ 서체의 발생과 변천 과정에 대해 조사해 본다.
- ④ ‘영자 팔법’의 원리에 대해 조사해 본다.
- ⑤ 붓의 운용 방법에 대해 조사해 본다.

[48 ~ 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많은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음성언어를 통해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의사소통이 언어적 메시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음성언어에 수반되는 강세, 어조, 억양 등의 반언어적 특질, 몸짓이나 얼굴 표정 등의 비언어적인 특질 등에 의해서 표현되는 화자의 느낌, 태도라는 ㉠ 메타메시지(meta-message)를 함께 전달한다. ‘메타메시지’란 문자 그대로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라는 뜻으로 실제 대화 내용, 대화 시기와 장소, 분위기, 화자의 상대방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의미한다. 언어적 메시지가 ‘무엇을’에 해당하는 의사소통의 내용적 측면이라면 메타메시지란 ‘어떻게’에 해당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메시지를 수용하는 수신자는 어떤 면에서 언어적 메시지보다는 메타메시지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는 얼마나 진지하고 예절 바르게 말하는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인가 등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 만약 말로 인해 갈등을 겪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말의 내용 [A] 때문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하는 방식이나 태도 때문이다. 같은 말이라도 떠벌리는 태도로 지나치게 크게 말한다면,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응시하며 말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 아무리 도움이 되는 말이라도 직접 면전에서 듣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는 것이 기분 나쁜 이유는 말하는 상황 자체에서 전달되는 메타메시지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실험 결과 거짓말을 할 때는 ㉢ 단순한 손짓의 횟수가 감소하였고, ㉤ 얼굴에 손을 대는 자기 접촉의 횟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자신의 코를 만진다든지 입을 가리는 행위가 자주 발견되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동안에 ㉣ 몸을 움직이는 횟수 또한 늘어났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의 표정은 진실한 말을 할 때의 표정과 거의 구별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온몸을 사용하여 거짓말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가령, 신경질이 나거나 긴장할 때, 놀랄 때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 행복한 얼굴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 주먹을 쥔 채로 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어 하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전화로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 후진으로 자동차 주차하거나 바늘에 실 꿰기 등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 몸의 작은 동작만으로도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진정한 거짓말의 달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목소리나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거짓 동작을 반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48. (가)와 (나)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보다는 동작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 ② 발화의 의미는 구체적인 장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③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면서 동시에 자의적 기호의 체계이다.
- ④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 ⑤ 인간의 언어는 창의적 생산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한다.

49. [A]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설득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한다. 강연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라.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라.
- ② 목소리를 조절하라.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는 커다란 목소리로 힘 있게 말하라.
- ③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상대방이 다양한 사례로 자신을 비판한다면 즉각 반격하라.
- ④ 예절 바르게 말하라. 말하는 내용보다 전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라.
- ⑤ 여유를 갖도록 하라. 상대방의 주변을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몸동작을 활용하라.

50.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51. <보기>의 설명을 통해서 ㉡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거짓말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서로 모순된 것들의 집합체가 된다. 이러한 모습은 ‘양립 신호’와 ‘모순 신호’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양립 신호’는 상반되는 기분이 동시에 표출된 결과로 나타난다. 반면에 ‘모순 신호’는 하나의 기분에 바탕을 두고 일부러 상반된 기분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① 서로 다른 감정이 표현된 것 같아. ‘적대감’과 ‘우호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잖아.
- ②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 직접적으로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
- ③ 무척 긴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동작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있잖아.
- ④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만 속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 아닐까? ‘웃음’과 ‘주먹 쥐기’는 상반된 표현이잖아.
- ⑤ 행복하지만 거짓으로 적대감을 표현한 것 같아. 웃음이 진짜 감정이고 불끈 쥔 주먹은 감정을 숨긴 것일 수 있거든.

[52 ~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누님의 세 번째 혼사는 저런 저런 할 만큼 빨리 이루어졌다. 혼사됐자 우리집에서 양쪽의 후줄그레한 손님 몇 사람을 모아 놓고 점심을 때우는 것으로 끝났지만, 맞선 본 지 보름 만에 그런 의식을 치러 낸 것이다.

누님은 그날 밤으로 보따리 몇 개를 들고 어머니를 따라 시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어쩐지 그 꼴이 보기 싫어 측간 옆에 숨어 있었다. 그런데도 누님은 일부러 나를 찾아내어 가지고는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다.

“잘 있어.” / “.....”

“가끔 올게.” / “그래 잘 가”

나는 누님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발끝으로 땅을 후비며 대답했다. 그것으로 누님과 이별이 끝났다.

누님이 우리집에 다시 나타난 건 그러나 시집간 지 한 달이 못되어서였다. 나도 놀랐지만 어머니의 기집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왜 왔어, 이년아.”

“아냐, 나 아주 온 것 아냐. 댕기러 왔어.”

누님은 아주 온 것이 아니라는 말부터 앞세웠다.

“김 서방은 어떡허고?” / “응, 내일 온됐어.”

“아이고, 가슴이야.”

어머니는 말과 함께, 실지로 당신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누님의 말대로 매부는 다음날 누님을 쫓아왔다.

그런데 ㉠ 매부도 누님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매부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잠을 자다가 밤에만 나갔다가 밤을 새우고 돌아오는 수도 있었고, 어떤 날은 하루에도 너댓 번 집을 들락거리는 수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매부를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다.

㉡ 그들은 내가 비워 준 방에서 오래오래 속닥거리기도 하고, 등사판을 들여놓고 무언가를 부지런히 찍어내기도 하였다. 놀라운 것은 그런 일에 누님이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등사판 미는 일을 거드는가 하면, 매부의 심부름으로 어딘가를 다녀 오기도 하였다.

(중략)

내 충고에도 불구하고 누님은 매부가 하는 일을 몸을 내던지다시피 하면서 거들었다. 그 중에서도 나를 아주 못마땅하게 한 것은 밤중에 몰래 나가 벽보를 붙이고 오는 일이었다. 물론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매부네 꽤거리들이 쓰다 버린 뼈라나 벽보를 주워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한문이 많아 잘은 몰라도, 소□미 공동위원회는 조속히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분자들을 처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든가, 백색 테러를 분쇄하라든가 하는 따위의 문구들이었다. ㉢ 놀라운 것은 누님이 밤에 쥐새끼처럼 벽보를 붙이고 오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좌익들이 벌이는 신탁통치 지지 데모에 가담하고도 다닌다는 사실이었다. 불행히도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그 광경을 본 친구들이 틀림없이 보았노라고 일러 주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머니도 이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벽보를 붙이거나 데모에 뛰어드는 것은 천만 아니지만, 벽보를 붙이는 데 필요한 풀 같은 것을 쓌어 주는 데 그다지 싫은 기색이 아니었다. 나는 보다못해 어머니에게도 대들었다.

“매부 자기 집으로 가라고 그래.”

“너는 곳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매부는 공산당이라구.”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제 계집 하나 지극히 위해 주고 사람 대접 해주니까 그게 고마울 뿐이지.”

“그래서 풀도 쭈어 주고 그러는 거야? / “그렇단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학식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밤 뇌라 배 뇌라 할 처지가 못 된다.”

요컨대 어머니는 매부가 그전 사람들과는 달리, 누님을 제대로 위해 주고 대접을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 누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일도 사람 대접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치부하는 모양이었다. 가장자리로만 내몰려서 어디 가나 사람 구실을 못 한다고 믿고 있던 누님이 매부를 만나 마침내 제 몫을 하고 있다고 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내 불안은 여전하였고 이런 불안은 어느 날 불행히도 적중하고 말았다. 누님이 경찰에게 붙잡힌 것이었다. 매부와 그 패거리들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세력의 사무실을 습격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누님도 그 속에 끼여 있었다는 것이었다. 아마 뒤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 용케도 체포를 면한 매부는, 그러나 그 뒤부터 어디로 갔는지 우리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소식이 없었다. 내 짐작대로 누님은 완전히 이용만 당하고 만 것이다.

얼마 만에 풀려 나온 누님은 다시 외톨토리가 되었고 사오 년을 그렇게 살다가 신장병으로 죽었다. 누님이 죽기 일년 전인가 나는 물은 일이 있었다.

“누나, 그때는 왜 그렇게 열을 내었어?”
“내가 아니? 남편 안 놓칠라고 멋도 모르고 그랬는가?”
누님은 의문부를 보태서 대답했다.

[A] 나는 누님의 이 말을 듣고, 해방 직후 어떤 사람들의 행위 중에는 누님의 이런 말로 유추되는 일도 그다지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사상이라는 걸 포함해서 말이다.

이래저래 나는 그해 겨울을 생각하면 신열이 날 만큼 우울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그런 누님을 가짐으로 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올망졸망하게 커오고, ㉢ 지금 엉뚱하게도 그런 슬픈 기억들을 감미롭게 다독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 최일남, '누님의 겨울' -

52. 위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교차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아이와 성인의 이중적 시각으로 비극적 상황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⑤ 인물을 지칭하는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주제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53. ㉠의 원인을 작가의 창작 의도와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가 ‘매부’를 일관되게 옹호한 이유를 보여주기 위하여
- ② ‘매부’와 ‘누나’의 갈등 관계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 ③ ‘나’가 ‘누님’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기 위하여
- ④ ‘나’와 ‘누님’의 친근한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 ⑤ ‘어머니’와 ‘누님’의 갈등 관계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54. 위 글과 <보기>를 참고한 감상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 나와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누님은 학교 문턱도 밟아 보지 못한데다 가는귀까지 먹어 집에서조차 돌림쟁이를 당하고 있었다. 그 누님이 시집가선들 제 구실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오히려 더욱 누님이 안쓰럽게만 보였다.

◦ 소문만이 요란했다. 서울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등, 읍내에도 그와 비슷한 단체가 생겼다는 등, 들리는 소리는 하나 같이 신기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우리집은 아무것도 변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었다. 있다 해도 별반 변화가 없을 것이었다.

- ① 나는 ‘누님’이 ‘나’의 정서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살펴볼 거야.
- ② 나는 왜 ‘나’와 ‘누님’의 갈등이 끝내 해소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알아 봐야지.
- ③ 나는 작가가 왜 ‘누님’을 결함이 많은 인물로 설정했는지에 대해 알아 볼 거야.
- ④ 나는 작중 인물의 태도 변화와 당대의 현실 변화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아 봐야지.
- ⑤ 나는 ‘누님’과 ‘어머니’의 행위가 주제를 구현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봐야지.

55. [A]를 <보기>와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광복되었지만 남·북한을 미·소 양군이 점령함으로써 통일 정부의 수립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을 5년 동안 미·영·소의 신탁통치하에 두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진영과 찬성하는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전국이 신탁 찬반의 여론에 휩싸이게 되었다.

- ① 진정한 광복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매부’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② 민족 내부의 대립으로 민족 전체가 불행해질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누님’과 ‘어머니’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③ 외세에 의해 발생한 민족의 극한적 대립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무엇인지를 ‘나’의 서술 태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④ 정치나 사상에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누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⑤ 좌우익의 극한적 대립으로 인한 비극적 상황이 빚어진 현실에서는 어느 누구도 흑백논리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음을 ‘어머니’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56. ㉠~㉢ 중, 대상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다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57 ~ 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든 논증에서는 전제를 통해 결론에 이르는 근거를 찾는다. 그래서 논증을 접했을 때 제일 먼저 제기하는 물음은 그 논증의 전제들이 과연 참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전제의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사실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논증의 전제들이 참일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물음은 이 전제들이 논증의 결론을 제대로 이끌어 내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논증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논증의 구조는 구체적 지식을 참고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논증의 구조에 대한 물음을 살펴보면, 전제들이 참일 경우 ‘그 전제들이 어떻게 결론을 지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심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논증은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전제가 결론을 결정적으로 지지하는가, 부분적으로 지지하는가에 따라 논증의 구조가 달라진다. 전제가 결론을 ‘결정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의 의미는 논증의 전제들이 참일 경우 결론 역시 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논증을 ‘타당한 연역 논증’이라 부른다.

논증의 전제들이 결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은 전제가 참이라면, 그 전제들은 우리가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만,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서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면, 결론은 아마 참일 것이지만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논증을 ‘올바른 귀납 논증’이라 부른다.

전제가 결론을 거의 지지하지 않거나 결코 지지하지 않는 경우는 올바른 귀납 논증도 타당한 연역 논증도 아닌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오류 논증’이라 부른다. 오류 논증에 사용된 전제들은 언뜻 보면 결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논증 자체가 연역 논증이나 귀납 논증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렇게 제시된 증거들은 실제로는 매우 빈약하거나 결론과 무관한 것들이다. 따라서 오류 논증의 전제들은 비록 그것들이 참일지라도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류 논증의 결론은 아마도 우연히 참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증의 전제들은 결론을 참으로 보장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연역 논증이나 귀납 논증이 각자에 적합한 방식으로 결론을 지지하고, 각 논증의 모든 전제들이 참일 때 우리는 ‘건전한 논증’이라 부른다. 만약 우리가 결론의 참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건전한 논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어떤 논증이 논리적으로 아무런 결함을 가지지 않을지라도 전제들 중 일부가 거짓이라면, 결론의 참은 결코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5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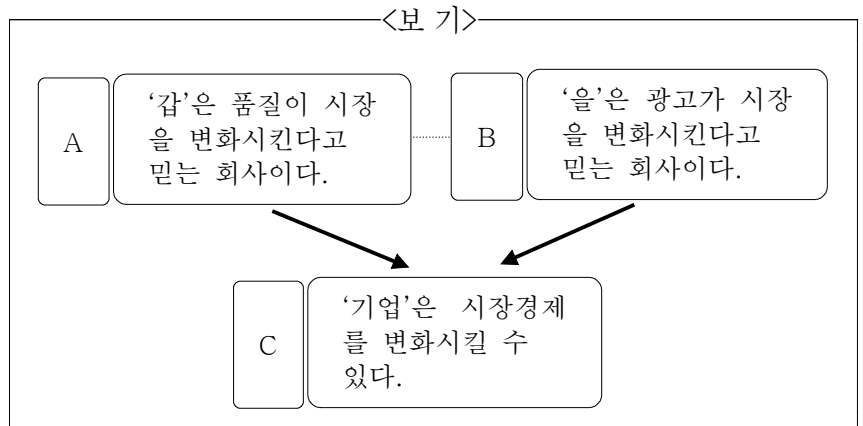
- ① ‘올바른 귀납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은 언제나 참이 된다.
- ② ‘오류 논증’이라고 하여도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 ③ ‘오류 논증’의 경우, 전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이 늘 참이 아닐 수도 있다.

- ④ 논증의 전제가 결론을 결정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를 ‘타당한 연역 논증’이라고 한다.
- ⑤ 모든 전제가 참이고 적합한 방식으로 결론을 지지하는 논증을 ‘건전한 논증’이라고 한다.

58.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상반된 두 견해를 대비하여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③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사례를 들어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 ④ 핵심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구체적 자료로 문제를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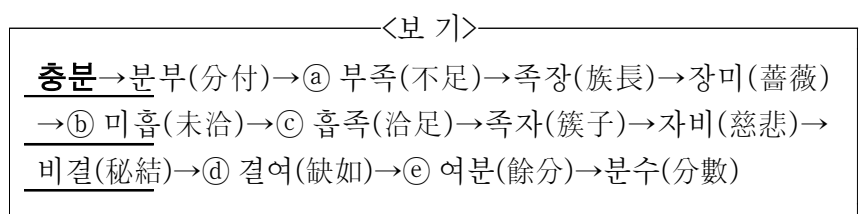
59.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기>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A는 B를 결정적으로 지지한다.
- ② B는 C를 결정적으로 지지한다.
- ③ A와 B는 C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 ④ C는 A와 B의 결정적 지지를 받는 타당한 결론이다.
- ⑤ A는 B를 결정적으로 지지하고, B는 C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60. ㉠을 이용하여 <보기>와 같이 ‘끝말잇기’ 놀이를 해 보았다.

㉠ ~ ㉡ 중, ‘충분(充分)’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